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2. 01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2. 01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경북경제동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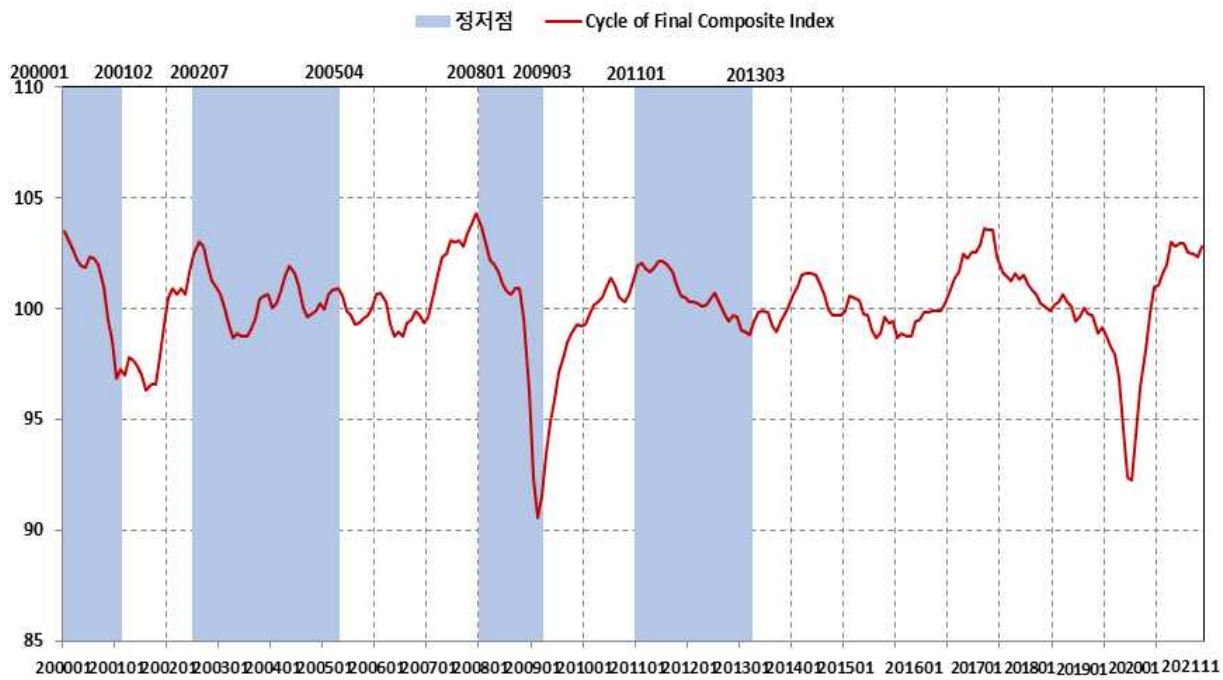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1.11
	BSI	22.01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1.12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1.12
	신용카드사용액	21.10
투 자	자본재수입액	21.12
건 설	건축허가면적	21.12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1.12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1.12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2.01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1.11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2.01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21.12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1.12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1.11

경북경제동향
총괄

경 기	• 교역량 증가는 지속되었지만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 감소로 제조업업황 부진
생 산	•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에 이어 휴대용전화기, 휴대폰용카메라모듈 등의 생산 증가로 전자부품 생산 증가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소비 활성 유인에도 불구, 전년동월대비 2달 연속 하락
투 자	• 자본재 수입은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입이 크게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기기는 감소
건 설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재개발주택, 공장·창고, 토지조성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교 역	• 교역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지속, 무역수지 증가세 지속
고 용	• 취업자 증가는 제조업 (2만 8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7천 명) 등에서 견인, 임금근로자수 회복세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석유류,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견인
금 융	•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기업대출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구미, 포항, 경산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소기업	• 어음부도액과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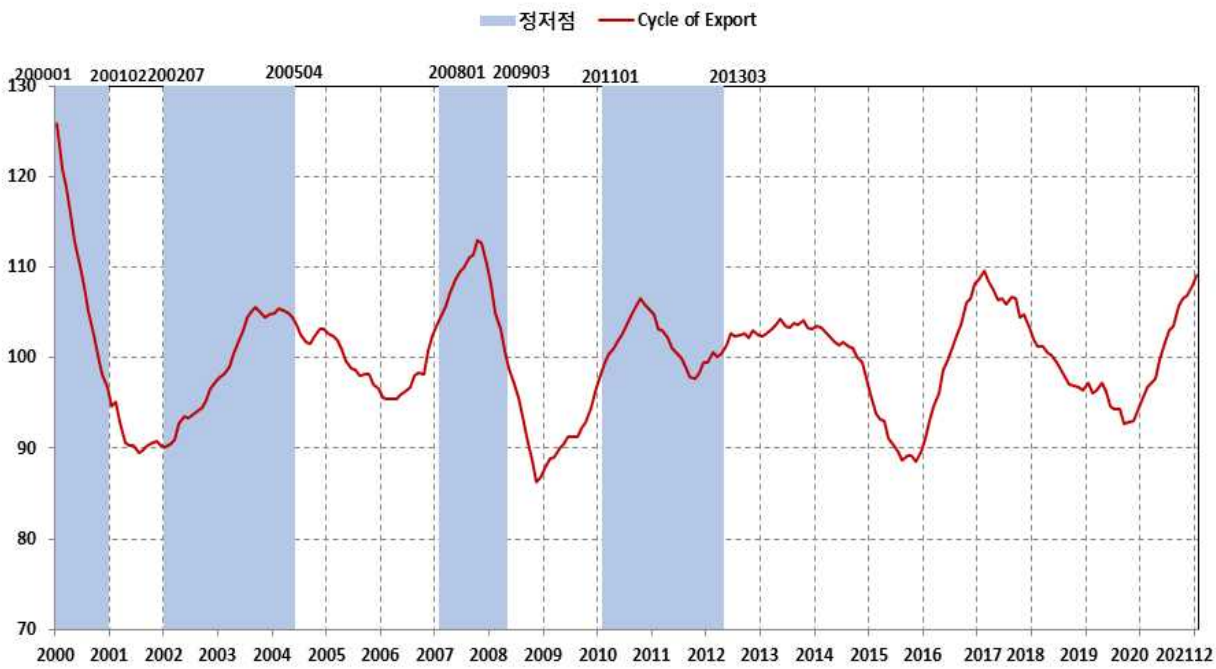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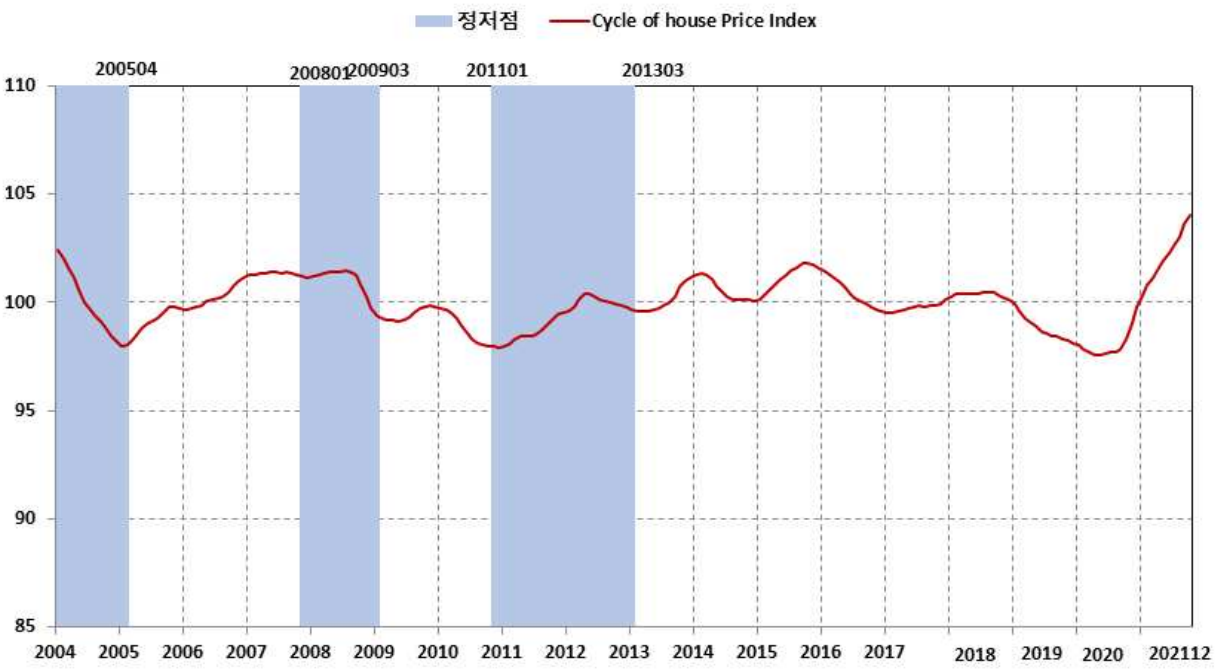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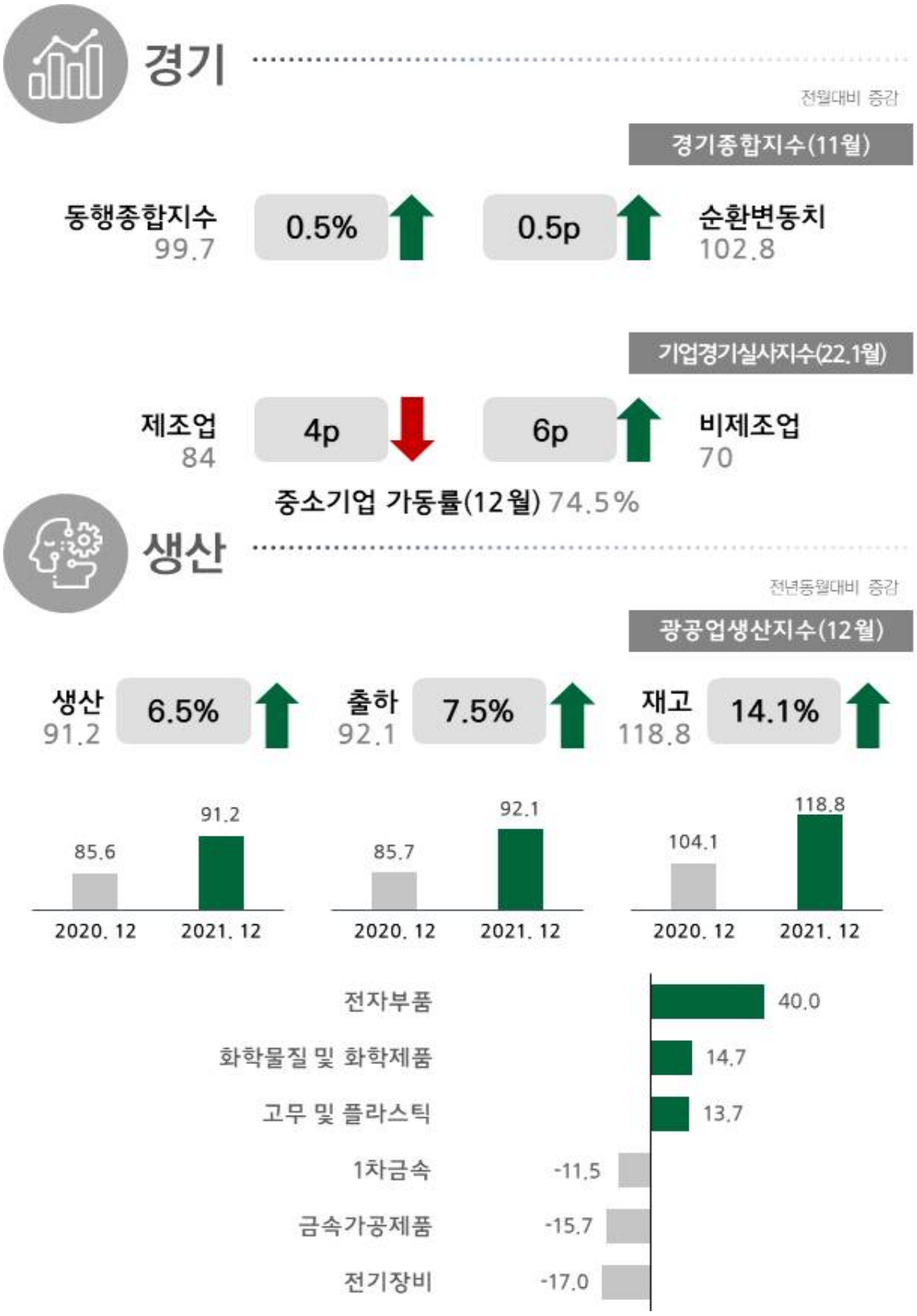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2월)	신용카드사용액(10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12월)
83.9	1조 1,740억 원	5,582대
1.2% ▼	20.1% ▲	16.1% ▼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본재수입액(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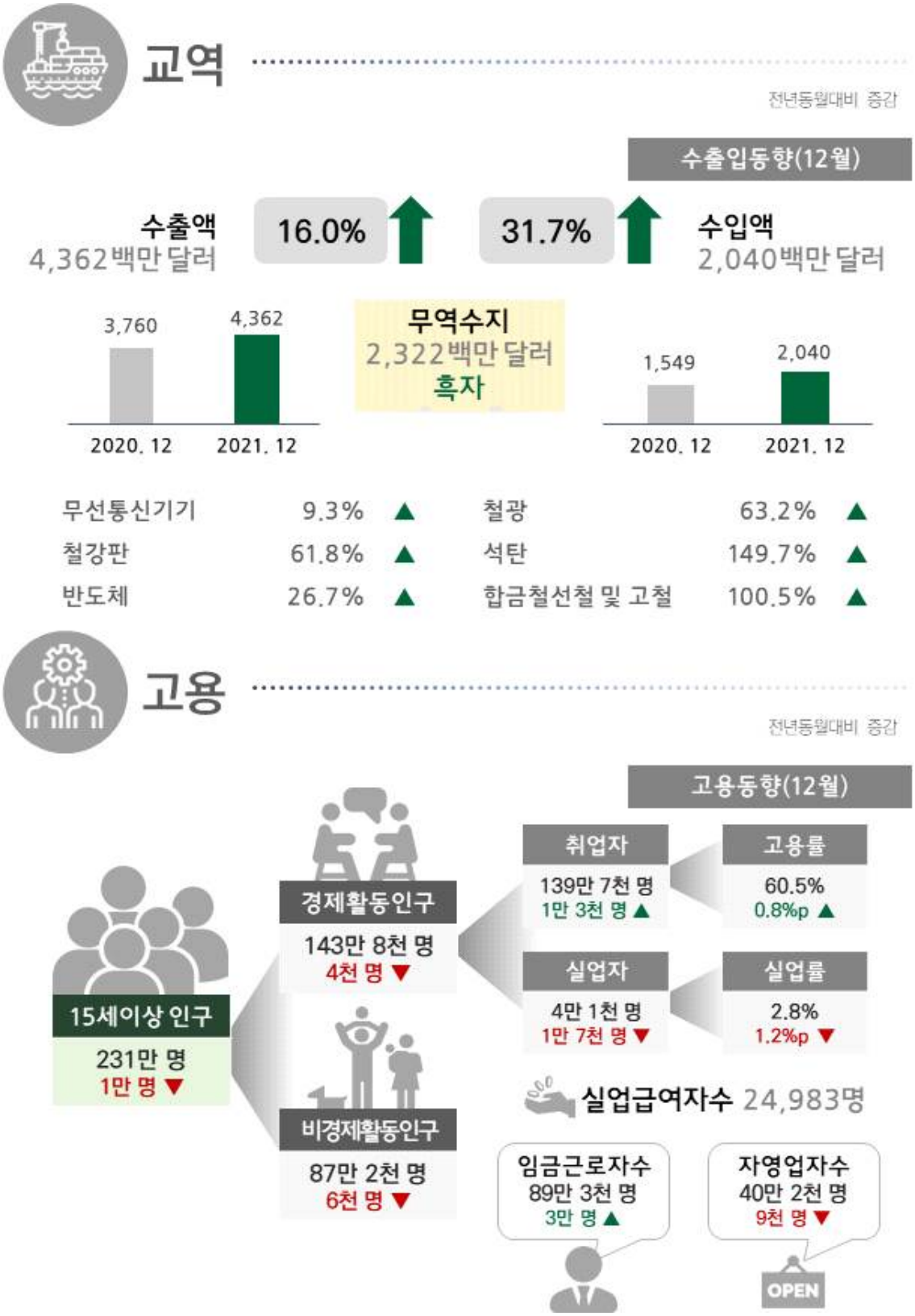
237,066천 달러 3.2% ▲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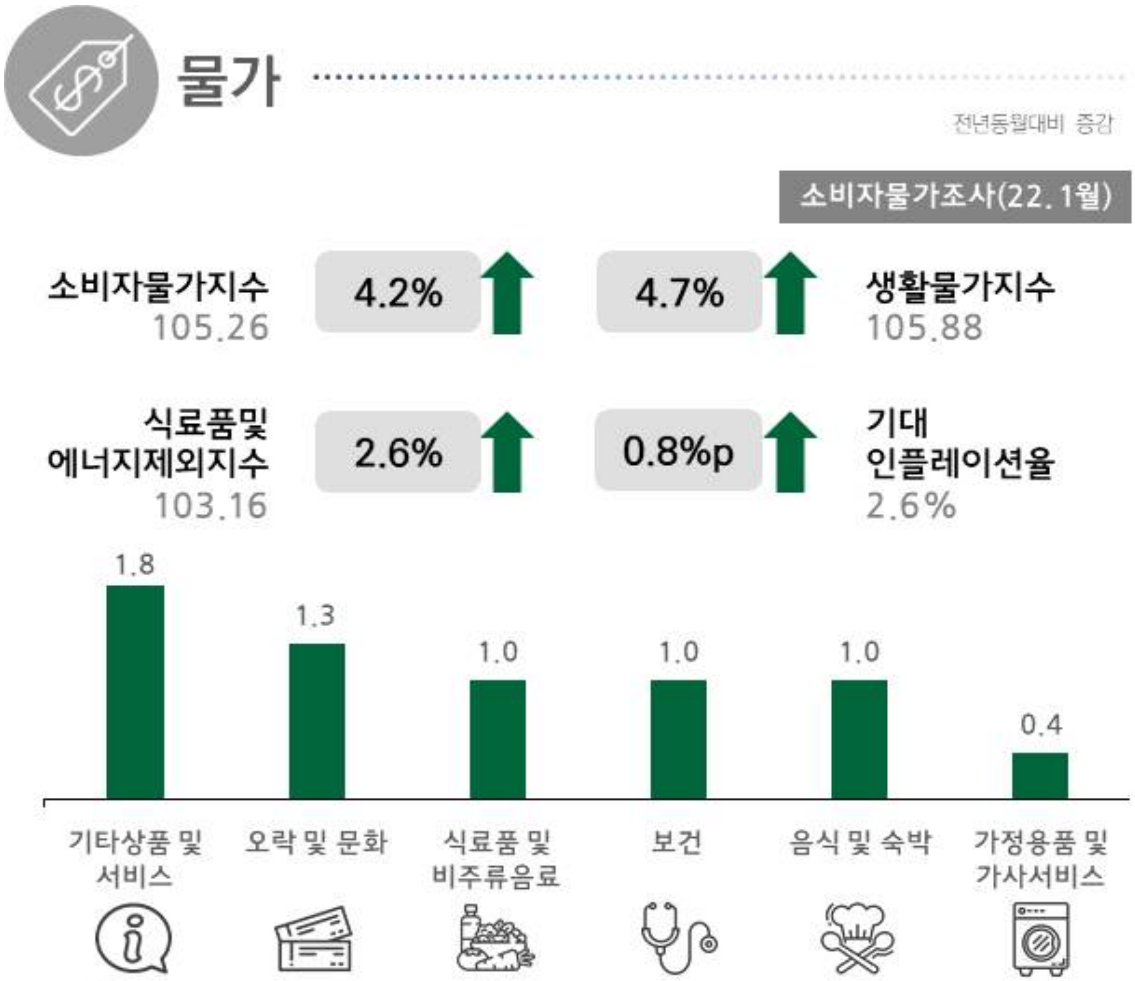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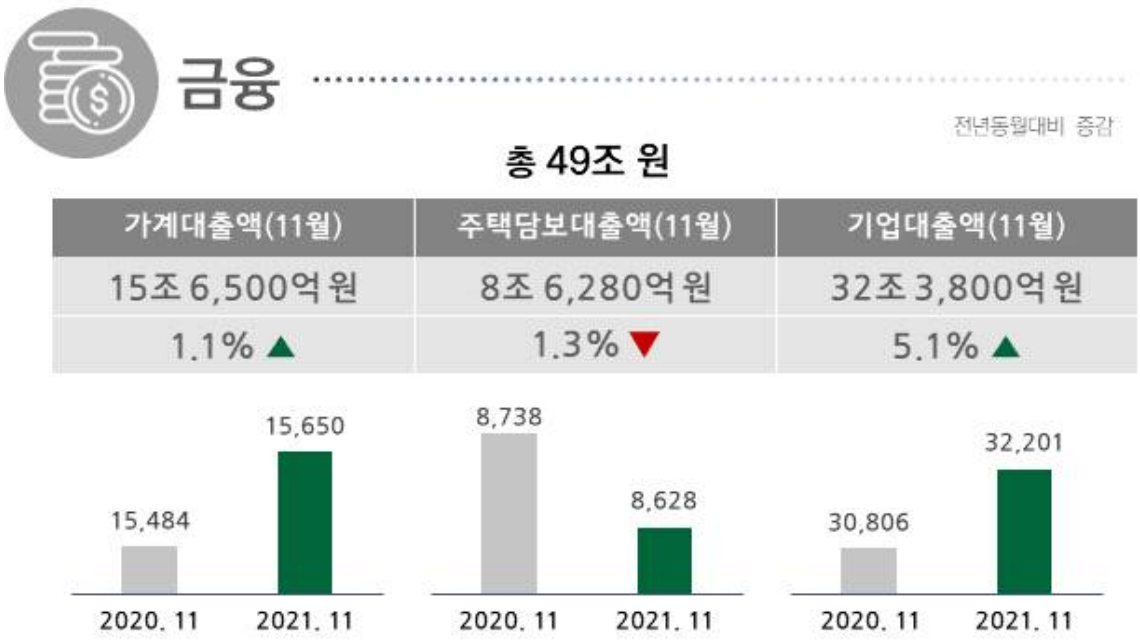
건축물허가면적(12월)	건축물착공면적(12월)	건설수주액(12월)
908,242㎡	1,298,535㎡	1조 560억 원
61.1% ▲	33.0% ▲	50.6% ▼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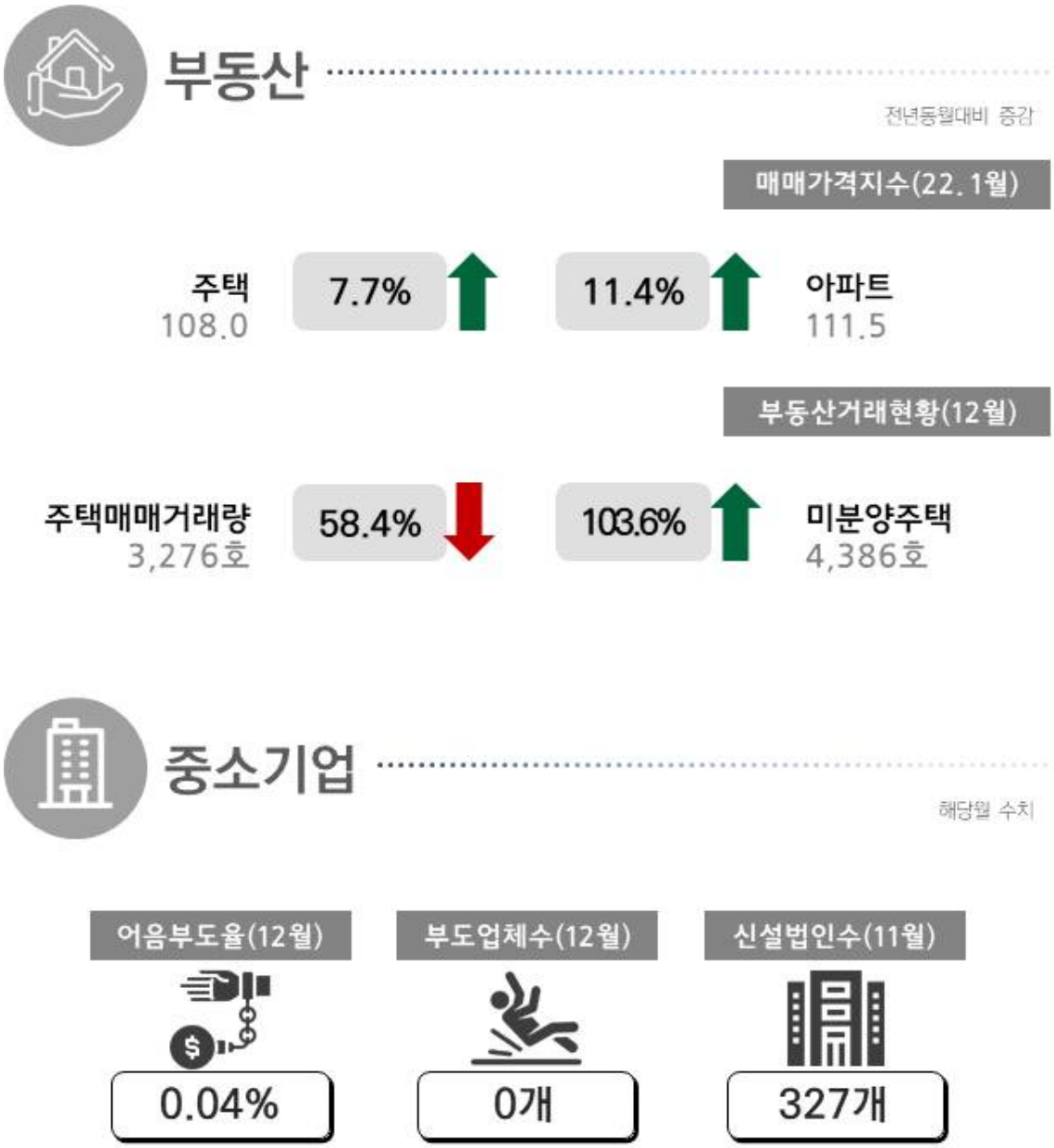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11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5%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99.7로 전월대비 0.5% 상승, 순환변동치는 102.8로 전월차 0.5p 증가

- 구성지표 중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1.2%), 제조업전력사용량(0.6%), 수출액(실질)(3.0%), 수입액(실질)(5.4%)은 증가, 비농가취업자수(−0.2%),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3.5%),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1.2%)는 감소

11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5%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17.7로 전월대비 0.5% 상승, 순환변동치는 101.4로 전월차 0.4p 증가

- 구성지표 중 건설기성액(1.2%), 서비스업생산지수(1.2%)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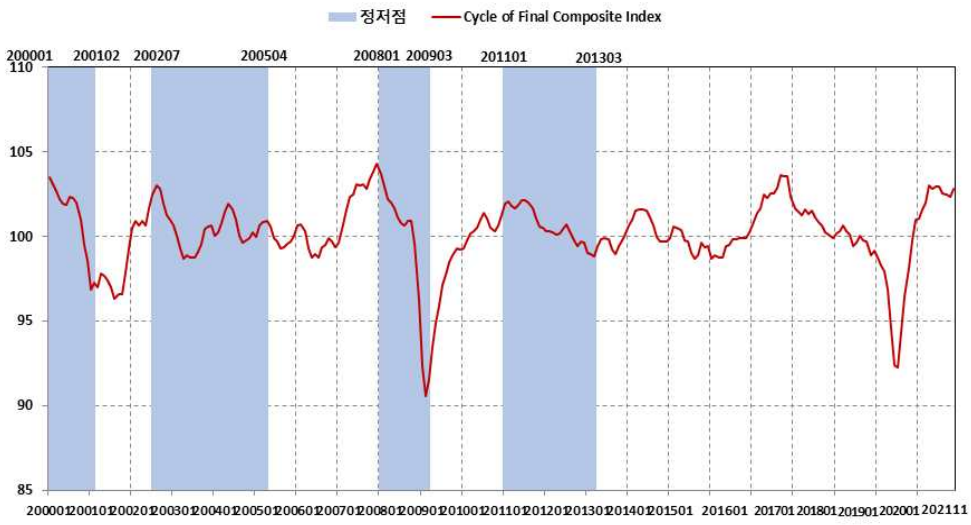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1					
		06	07	08	09p	10p	11p
경북	동행종합지수	99.8	99.8	99.4	99.4	99.2	99.7
	전월대비(%)	0.2	0.0	−0.4	0.0	−0.2	0.5
	순환변동치	102.9	103.0	102.5	102.5	102.3	102.8
	전월차(p)	0.1	0.1	−0.5	0.0	−0.2	0.5
전국	동행종합지수	116.8	117.0	117.1	117.2	117.1	117.7
	전월대비(%)	0.2	0.2	0.1	0.1	−0.1	0.5
	순환변동치	101.2	101.3	101.3	101.2	101.0	101.4
	전월차(p)	0.0	0.1	0.1	−0.1	−0.2	0.4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2022년 1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감소, 비제조업 BSI 증가

2022년 1월 제조업 BSI는 84, 비제조업 BSI는 70

○ 제조업 업황BSI는 84로 전월대비 4p 감소, 2022년 2월 업황 전망BSI는 70으로 6p 증가

- 매출BSI는 94로 전월대비 11p 감소, 2022년 2월 전망은 104로 7p 증가
- 생산BSI는 97로 전월대비 2p 감소, 2022년 2월 전망은 101로 8p 증가
- 채산성BSI는 79로 전월대비 12p, 2022년 2월 전망은 81로 2p 각각 감소

○ 비제조업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6p, 2022년 2월 업황 전망BSI는 66으로 8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80으로 전월대비 4p, 2022년 2월 전망은 80으로 10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78로 전월대비 5p 감소, 2022년 2월 전망은 78로 9p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1							2022	
	06	07	08	09	10	11	12	01	02
제조업 BSI	90 (85)	84 (87)	92 (81)	90 (91)	82 (92)	83 (84)	88 (87)	**84 (83)**	– **(87)**
비제조업 BSI	66 (65)	79 (70)	73 (77)	71 (72)	78 (68)	73 (80)	64 (69)	**70 (58)**	– **(66)**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년 1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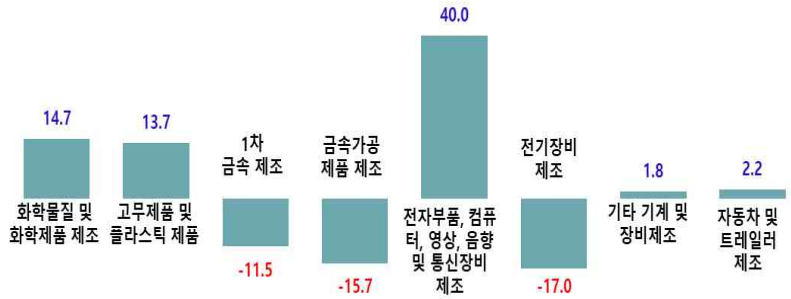
생산

12월
광공업 생산, 출하, 재고
전년동월대비 증가

광공업생산지수는 91.2로 전년동월대비 6.5%, 전월대비 7.4% 각각 상승

○ 광공업생산지수는 1차금속, 전기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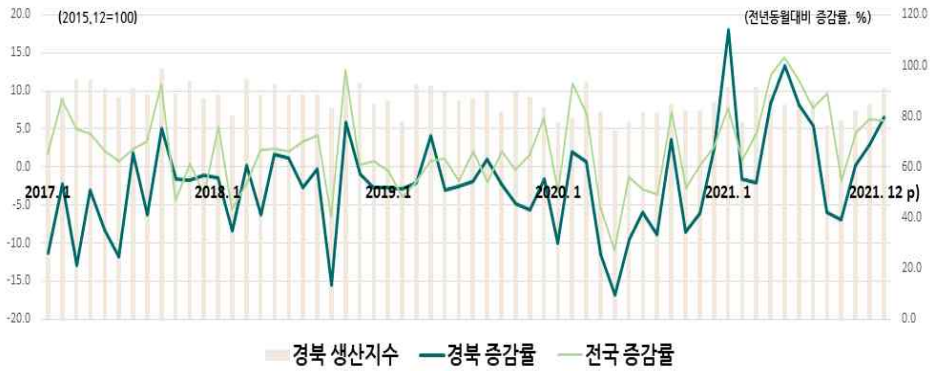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전자부품(40.0%), 화학제품(14.7%), 기계장비(1.8%) 등이 증가
- 전자부품은 휴대용전화기, 실리콘웨이퍼, 시스템반도체 등이 증가, 화학제품은 반도체용식각제, 폴리에스터섬유, 선형폴리에스터수지 등이 증가
- 1차금속(−11.5%)은 냉연강판, 선재, 석도강판 등이며, 전기장비(−17.0%)는 태양광모듈, 차량용조명등, 광섬유케이블 등에서, 금속가공(−15.7%)은 용접봉, 나사제품, 육상금속구조물 등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81.9	84.5	86.2	77.1	78.6	82.5	84.9	91.2
(−5.9)	(8.2)	(5.4)	(−5.4)	(−7.0)	(0.4)	(3.0)	(6.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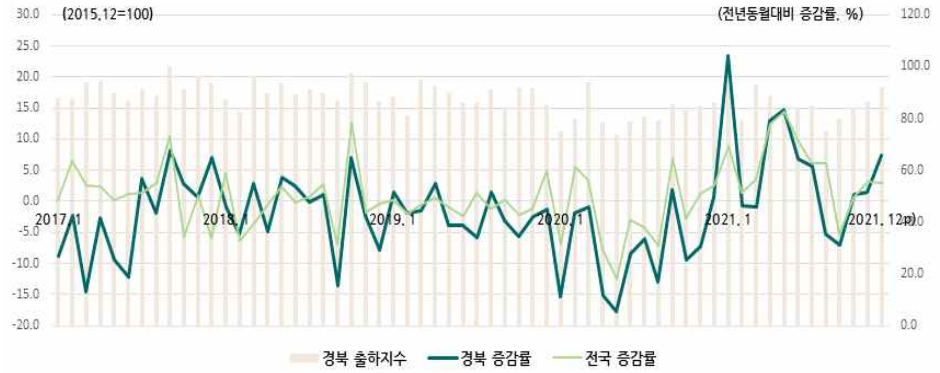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7.5%, 전월대비 6.7%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전자부품(45.5%), 고무제품(12.9%), 화학제품(6.6%)등이 증가, 1차금속(−5.9%), 금속가공(−16.2%), 전기장비(−13.0%)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81.6	84.0	85.1	75.5	79.6	84.2	**86.3**	**92.1**
(−7.8)	(6.9)	(5.7)	(−4.8)	(−7.0)	(1.1)	**(1.4)**	**(7.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공업제품재고지수 전년동월대비 14.1% 상승, 전월대비 2.2% 하락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기계장비(48.4%), 1차금속(11.5%), 전기장비(41.5%) 등이 증가, 금속가공(−28.9%), 섬유제품(−7.4%), 담배(−14.2%) 등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104.1	106.9	109.3	118.6	122.3	119.8	**121.5**	**118.8**
(−1.4)	(−5.8)	(−1.7)	(5.9)	(11.2)	(11.3)	**(18.7)**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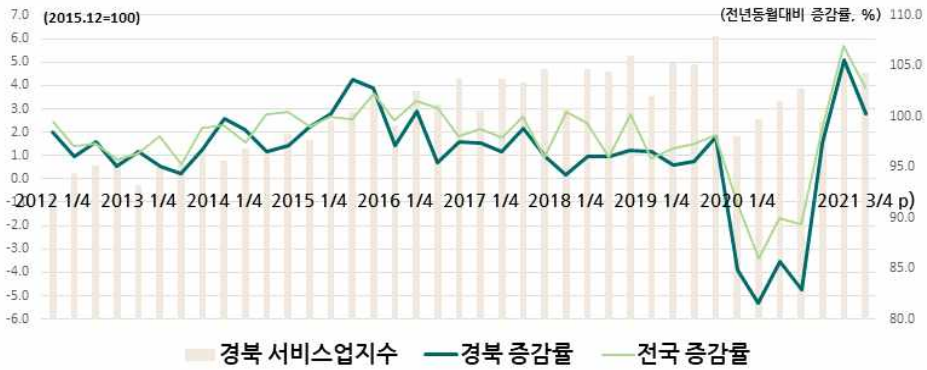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2.8% 상승, 전기대비 0.5% 하락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2/4P	3/4P
107.9	98.0	99.9	101.5	102.8	99.5	104.8	**104.3**
(1.8)	(−3.9)	(−5.1)	(−3.5)	(−4.7)	(1.5)	(5.1)	**(2.8)**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12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12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1.2% 하락, 전월대비 7.4% 상승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83.9로 전년동월대비 1.2% 하락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08.4로 전년동월대비 9.8% 상승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85.3으로 전년동월대비 3.1%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신발·가방,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은 증가, 가전제품, 음식료품, 기타상품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대형 소매점	82.7 (-4.4)	79.4 (0.8)	98.4 (25.7)	84.6 (-3.6)	92.8 (-3.8)	87.0 (7.8)	78.1 (-4.2)	83.9 (-1.2)
대형마트	86.1 (-2.4)	81.4 (0.4)	103.8 (25.8)	90.4 (-4.2)	95.7 (-6.6)	86.2 (6.6)	75.6 (-6.7)	85.3 (-3.1)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0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1,74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상승

○ 금융·보험(106.3%), 기타(87.6%), 자동차(24.3%)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51.4%)의 사용액 감소

- 종합소매(5.6%), 숙박·음식(14.8%)의 사용액 모두 증가
- 종합소매(5.6%) 사용액 중 전년동월대비 편의점(16.0%), 백화점(12.5%), 슈퍼마켓(4.9%), 대형마트(1.8%)의 사용액은 증가
- 숙박·음식(14.8%) 사용액 중 숙박(29.5%), 음식점(14.0%)의 사용액 모두 증가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1							
03	04	05	06	07	08	09	10
1,012.2 (27.5)	1,011.3 (17.8)	1,089.2 (6.3)	1,057.2 (10.3)	1,138.4 (19.2)	1,115.4 (6.4)	1,100.2 (13.8)	**1,174.0** **(20.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12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5,582대로 전년동월대비 16.1% 하락

○ 신차 출고 지연 지속으로 인해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79,482 (6.3)	7,276 (−15.1)	7,277 (1.5)	5,364 (−0.5)	4,989 (−30.1)	5,025 (−26.0)	6,179 (−18.0)	**5,582** **(−16.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9	74,747	56,693	2,050	15,369	635
2020	79,482	60,412	1,948	16,404	718
2021. 6.	7,276	5,181	138	1,867	90
7.	7,277	4,997	100	2,083	97
8.	5,364	3,912	74	1,299	79
9.	4,989	3,547	86	1,270	86
10.	5,025	3,919	82	946	78
11.	6,179	4,702	92	1,313	72
12.	5,582	4,030	110	1,343	99

투자

12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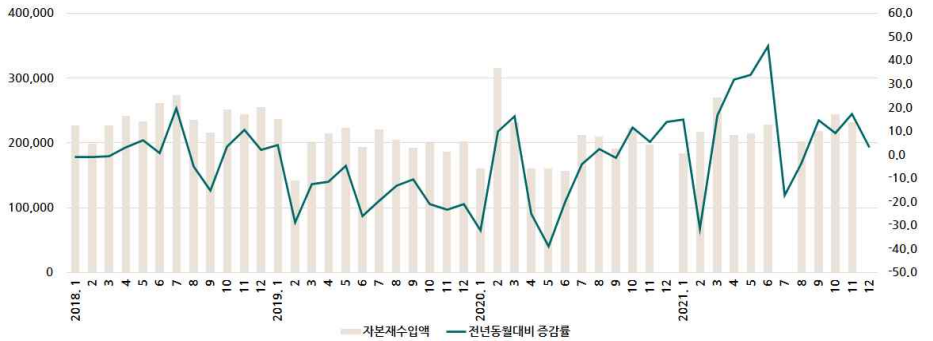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37,066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16.5%)와 수송장비(11.2%)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기기(−11.4%), 기타 자본재(−11.1%) 수입은 감소
-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 금속공작기계(112.8%), 광학기기(108.6%)의 수입이 증가
- 전기·전자기기 중 메모리반도체(−32.4%), 전자관류(−16.6%), 무선통신기기(−14.9%)의 수입은 감소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1							
05	06	07	08	09	10	11	12
215,085 (33.9)	228,588 (46.1)	211,716 (−17.4)	201,991 (−3.6)	218,249 (14.5)	243,481 (9.0)	231,223 (17.3)	**237,066** **(3.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12월 건축물허가면적, 건축물착공면적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61.1% 상승한 908,242㎡

- 용도별로 상업용, 공업용은 증가, 주거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48.7% 감소한 315,302㎡, 상업용은 131.3% 증가한 198,119㎡, 공업용은 16.1% 증가한 90,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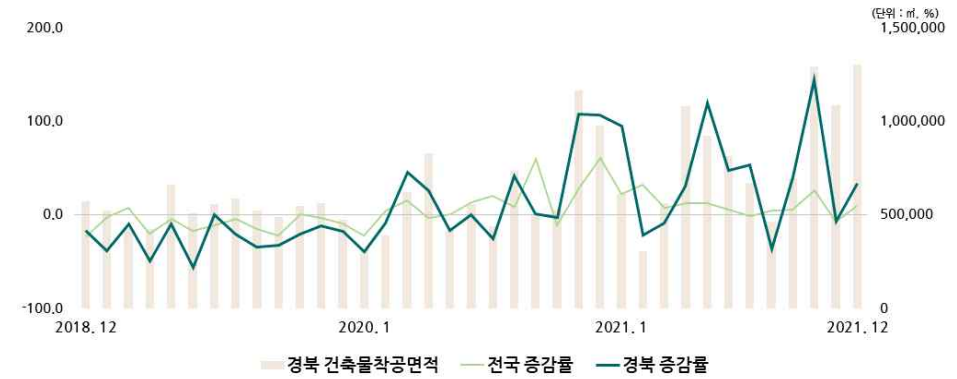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3.0% 상승한 1,298,535㎡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증가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48.0% 증가한 909,979㎡, 상업용은 48.8% 증가한 127,472㎡,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24.9% 증가한 97,630㎡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 분	2021						
	06	07	08	09	10	11	12
건축허가면적	554,548 (-19.9)	1,110,817 (82.7)	1,580,294 (210.0)	795,092 (31.9)	1,271,083 (163.4)	750,995 (37.1)	**908,242** **(61.1)**
건축착공면적	814,452 (47.0)	669,072 (52.9)	461,469 (-37.0)	694,149 (40.1)	1,289,009 (144.3)	1,081,782 (-7.0)	**1,298,535** **(33.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1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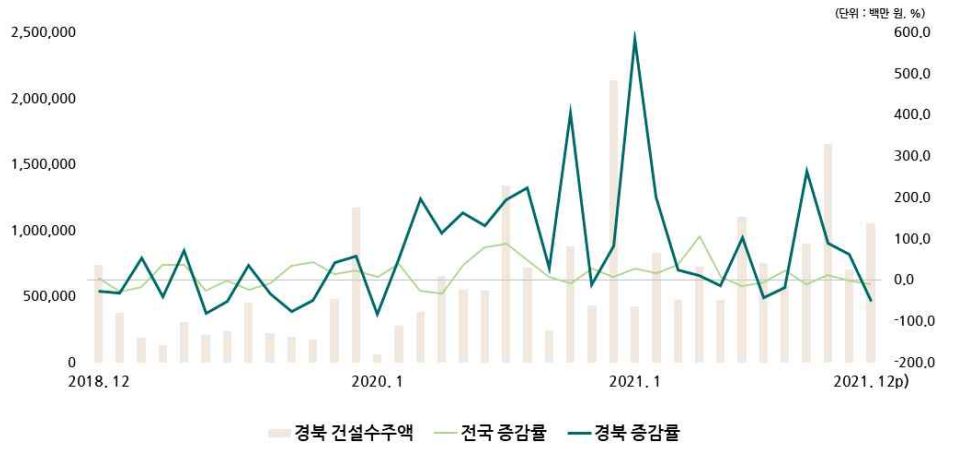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재개발주택, 공장·창고, 토지조성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50.6% 하락한 1,056,039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605,514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2.0%, 토목부문 450,525백만 원으로 17.3% 각각 하락
- (발주자별) 공공부문 375,204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0%, 민간부문 680,835백만 원으로 57.9% 각각 하락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8,227,951	1,104,897	755,173	585,585	898,483	1,653,721	704,624	1,056,039
(98.5)	(103.3)	(−43.7)	(−18.1)	(264.3)	(88.3)	(63.3)	(−50.6)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12월 수출액,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수출액은 4,362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0%, 수입액은 2,040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7% 각각 상승, 무역수지는 2,322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9.3%), 철강판(61.8%), 반도체(26.7%), 광학기기(−22.8%)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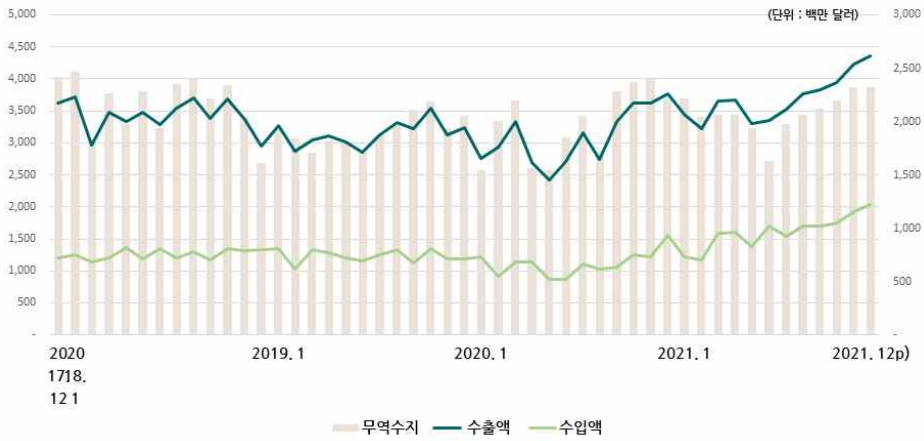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광(63.2%), 석탄(149.7%), 합금철선철및고철(100.5%), 정밀화학원료(67.0%)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8.5%), 미국(1.0%), 일본(42.2%), 베트남(10.7%) 순

○ 포항시 12월 화물수송은 4,856,736톤(R/T)으로 외항 4,091,074톤(R/T)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						
	06	07	08	09	10p	11p	12p
수출액	3,344 (23.1)	3,518 (11.5)	3,760 (36.8)	3,831 (14.7)	**3,944 (8.9)**	**4,238 (17.0)**	**4,362 (16.0)**
수입액	1,708 (97.0)	1,540 (39.3)	1,697 (65.4)	1,706 (61.8)	**1,748 (40.0)**	**1,920 (57.2)**	**2,040 (31.7)**
무역수지	1,636	1,979	2,063	2,124	**2,196**	**2,318**	**2,32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12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43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천 명(−0.3%)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87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전월대비 2.7% 상승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1,478 (−0.7)	1,467 (−2.5)	1,474 (−2.4)	1,453 (−2.3)	1,468 (−1.2)	1,474 (−0.9)	1,461 (−2.3)	**1,438** **(−0.3)**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월 취업자 13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3천 명(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2만 8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7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 명)은 증가, 농림어업(−2만 5천 명), 건설업(−8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천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0.9%)은 9대 광역도 중 7번째 기록

○ 제조업 취업자수는 3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21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 각각 상승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1,418 (−0.8)	1,421 (−0.2)	1,438 (−0.5)	1,432 (−0.6)	1,447 (0.6)	1,450 (0.8)	1,437 (−0.5)	**1,397** **(0.9)**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12월 고용률 60.5%로 전국평균 상회, 실업률 1.6%로 전국평균 하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한 60.5%로 전국평균 60.4%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국 67.3%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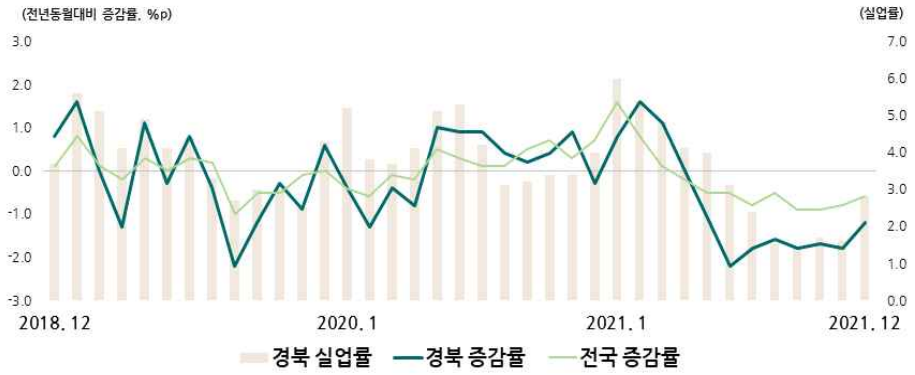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2%p 감소한 2.8%로 전국평균 3.5% 하회

- 실업자는 약 4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 명 감소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고용률	61.1 (−0.6)	61.6 (0.3)	62.3 (0.0)	62.0 (−0.1)	62.7 (0.7)	62.8 (0.8)	62.2 (−0.1)	**60.5** **(0.8)**
실업률	4.0 (0.1)	3.1 (−2.2)	2.4 (−1.8)	1.5 (−1.6)	1.4 (−1.8)	1.7 (−1.7)	1.6 (−1.8)	**2.8** **(−1.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12월 임금근로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자영업자수 감소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89만 3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2.4%), 일용근로자수(4.2%), 임시근로자수(15.4%)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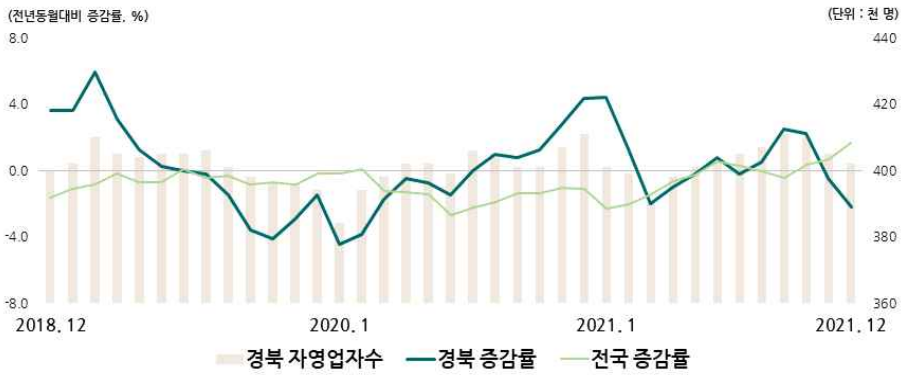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한 40만 2천 명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9.6%) 증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3.5%) 감소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임금근로자	893	887	896	891	901	901	905	**893**
	(−1.0)	(−0.5)	(−0.5)	(−1.1)	(0.1)	(0.0)	(−0.1)	**(3.5)**
자영업자	401	402	405	407	411	410	405	**402**
	(−0.2)	(0.7)	(−0.3)	(0.6)	(2.3)	(2.0)	(−0.5)	**(−2.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6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전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1.8%), 오락 및 문화(1.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0%), 보건(1.0%) 등은 상승, 통신은 보합, 교통(−0.5%)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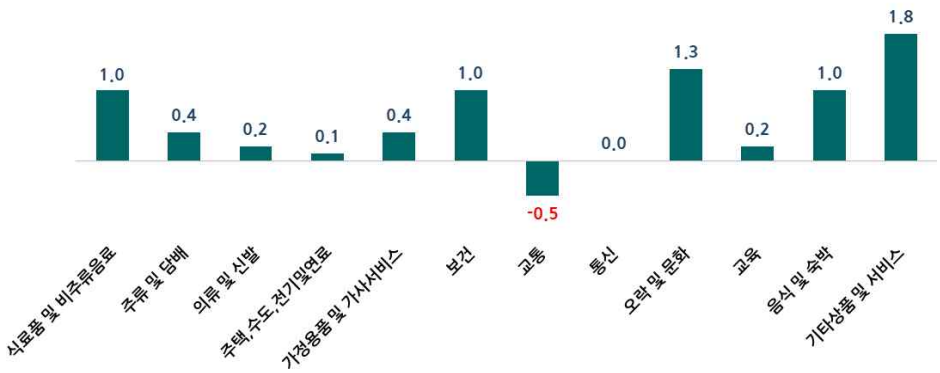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05.88로 전년동월대비 4.7%,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식품지수는 108.13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식품이외는 104.42로 3.7%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20=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	01
소비자 물가지수	100.00 (0.1)	102.49 (3.0)	103.01 (2.9)	103.52 (2.8)	103.75 (3.7)	104.38 (4.4)	104.65 (4.4)	**105.26 (4.2)**
생활 물가지수	100.00 (−0.2)	103.07 (3.9)	103.68 (3.8)	104.74 (3.7)	104.98 (5.4)	105.68 (6.0)	105.33 (5.4)	**105.88 (4.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11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한 15.7조 원으로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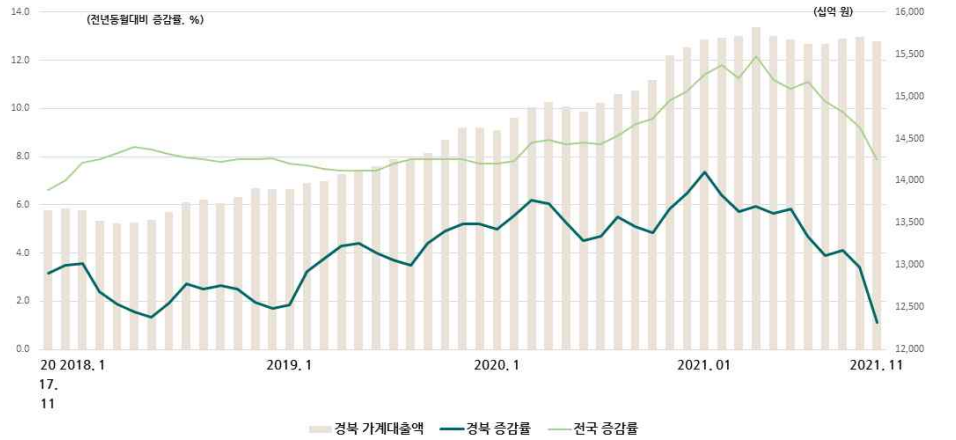
○ 총 대출액 49조 원 중 가계대출은 32.2% 차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대출 증가 지속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주택담보대출 전월대비 상승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5	06	07	08	09	10	11
15,579	15,717	15,677	15,621	15,622	15,686	15,706	15,650
(6.5)	(5.6)	(5.8)	(4.7)	(3.9)	(4.1)	(3.4)	(1.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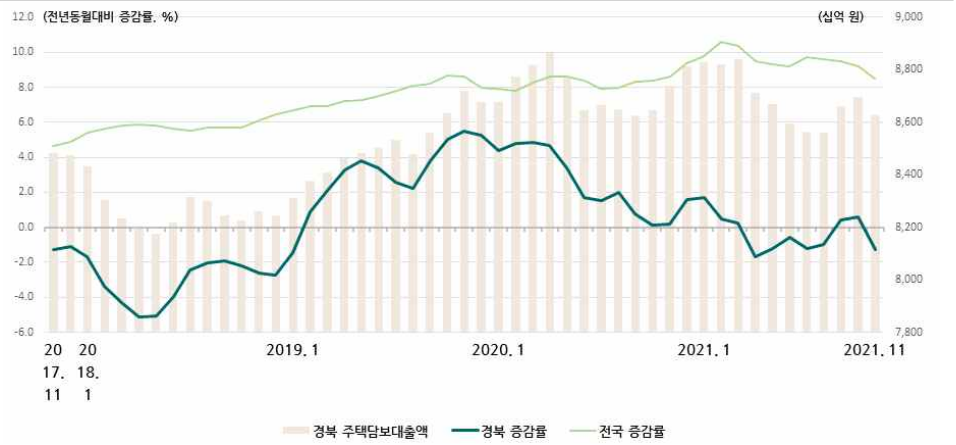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8.6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전월대비 0.8% 각각 감소

○ 총 가계대출 15.7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5.1%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5	06	07	08	09	10	11
8,815	8,668	8,595	8,562	8,561	8,661	8,695	8,628
(1.6)	(−1.2)	(−0.6)	(−1.2)	(−1.0)	(0.4)	(0.6)	(−1.3)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11월 기업대출액은 32.4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상승한 32.4조 원으로 전월대비 0.6% 증가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5	06	07	08	09	10	11
30,905	31,615	31,549	31,718	31,655	31,846	32,201	**32,380**
(10.8)	(7.2)	(6.5)	(6.5)	(5.5)	(5.5)	(4.9)	**(5.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7.7% 상승한 108.0

- 구미(10.6%), 포항(7.4%), 경산(4.1%)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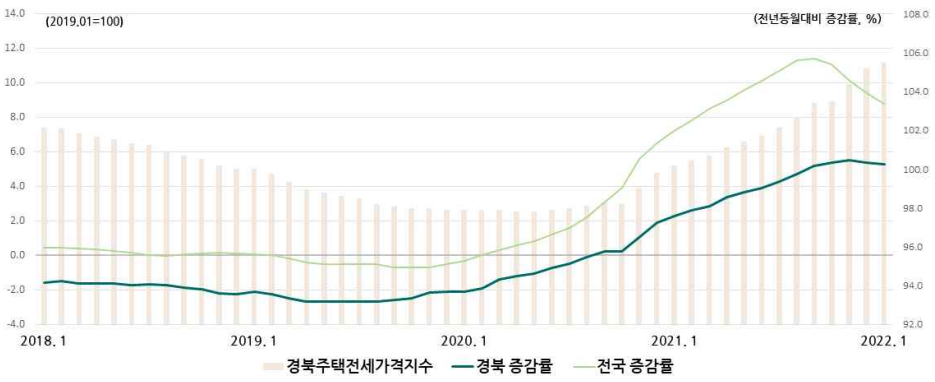
○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한 105.5

- 구미(6.7%), 포항(6.1%), 경산(1.8%)은 상승

주택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06	07	08	09	10	11	12	01
매매	103.7 (7.2)	104.2 (7.4)	104.7 (7.8)	105.7 (8.6)	106.3 (9.1)	107.3 (9.4)	107.8 (8.7)	**108.0** **(7.7)**
전세	101.7 (3.9)	102.2 (4.3)	102.7 (4.7)	103.4 (5.2)	103.5 (5.4)	104.4 (5.5)	105.2 (5.4)	**105.5** **(5.3)**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1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1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한 111.5

- 포항(10.7%), 구미(15.0%), 경산(6.0%), 안동(11.5%)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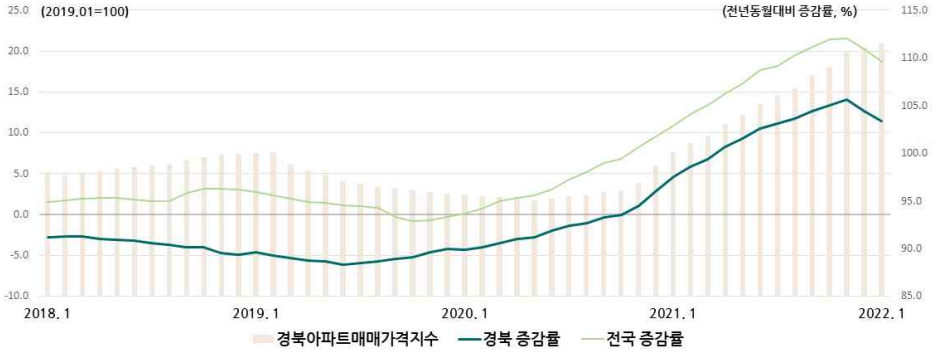
○ 1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7.4% 상승한 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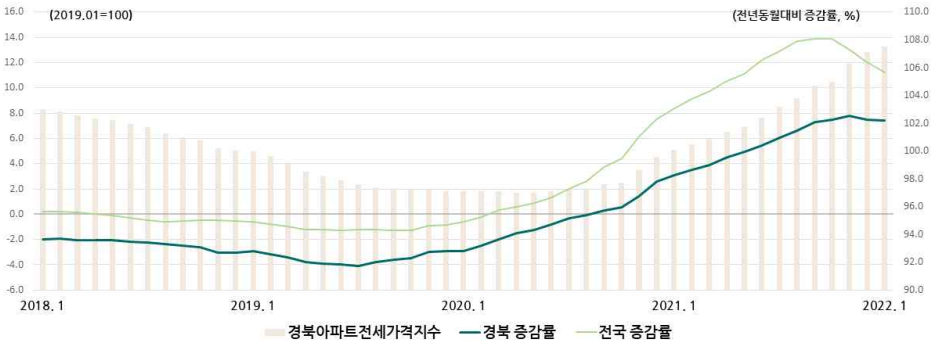
- 포항(9.5%), 구미(9.6%), 경산(2.4%), 안동(4.7%)은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06	07	08	09	10	11	12	01
매매	105.2 (10.5)	106.1 (11.1)	106.8 (11.7)	108.1 (12.7)	109.0 (13.4)	110.6 (14.1)	111.1 (12.7)	**111.5** **(11.4)**
전세	102.4 (5.4)	103.2 (6.1)	103.8 (6.6)	104.7 (7.3)	105.0 (7.5)	106.3 (7.8)	107.1 (7.5)	**107.5**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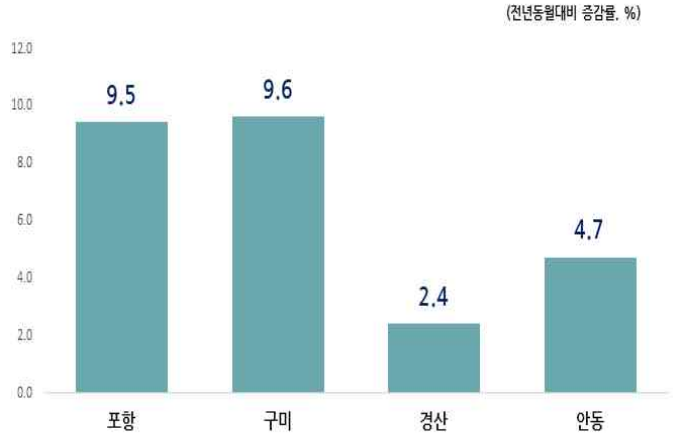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12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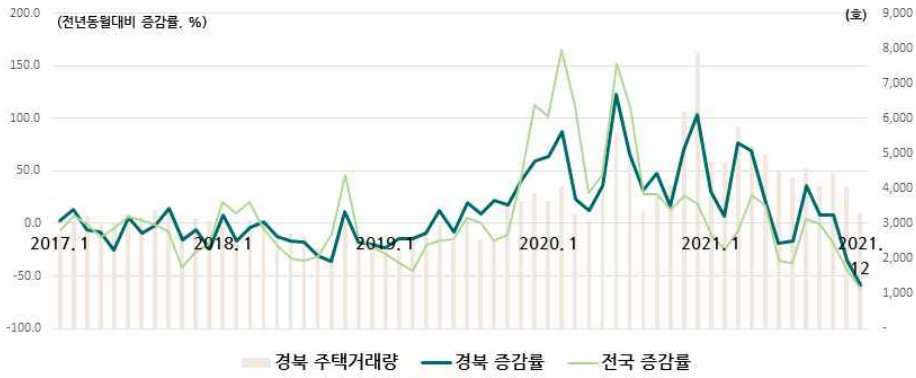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3,276호로 전년동월대비 58.4% 감소, 전국도 감소(−61.7%)

- 경산(−71.3%), 포항(−69.7%), 구미(−68.1%), 안동(−26.0%)의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감소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54,138	4,494	4,329	4,576	4,068	4,401	4,026	3,276
(56.9)	(−19.4)	(−17.1)	(36.2)	(7.8)	(7.5)	(−35.0)	(−58.4)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12월 미분양주택은 4,386호로 전월대비 2,788호 증가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2,919호), 김천(696호), 안동(233호), 구미(152호) 순

중소기업

12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04%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2%p, 전월대비 0.5%p 각각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3%이고, 충북(0.74%), 제주·경기(0.08%), 경북(0.04%), 강원(0.03%), 경남(0.02%) 순
- 어음부도액은 전월대비 7.9억 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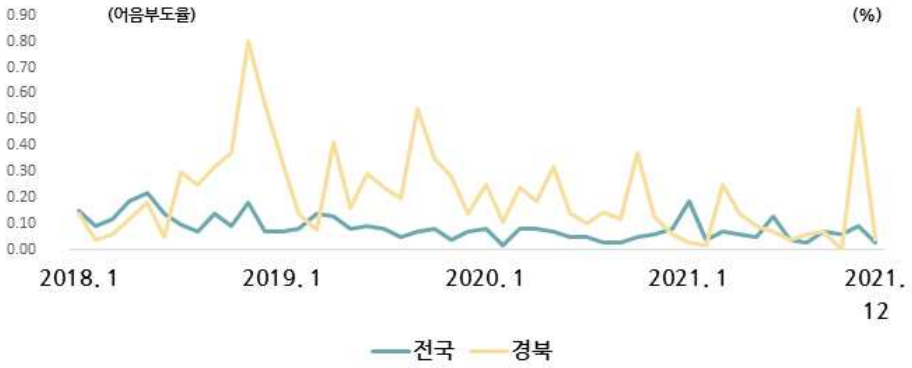
○ 부도업체수는 0개로 전년동월대비 4개 감소

- 총 부도 금액은 7.9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억 원 감소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1							
	05	06	07	08	09	10	11	12
어음부도율	0.09	0.07	0.04	0.06	0.07	0.00	0.54	0.04
부도업체수	1 −1	1 1	0 0	0 −2	0 −1	0 −1	2 −1	0 −4
신설법인수	280 −16	376 −37	298 −103	303 0	278 −6	322 38	327 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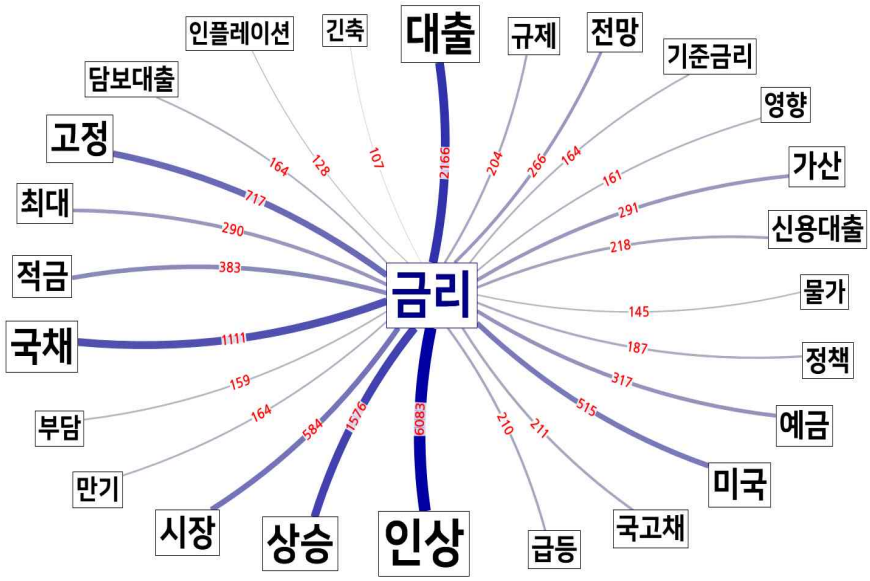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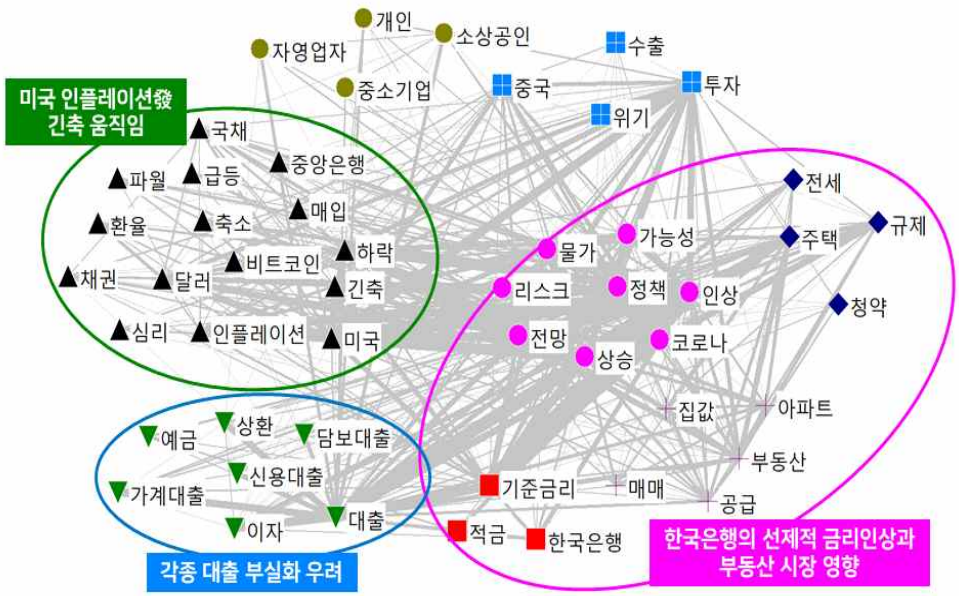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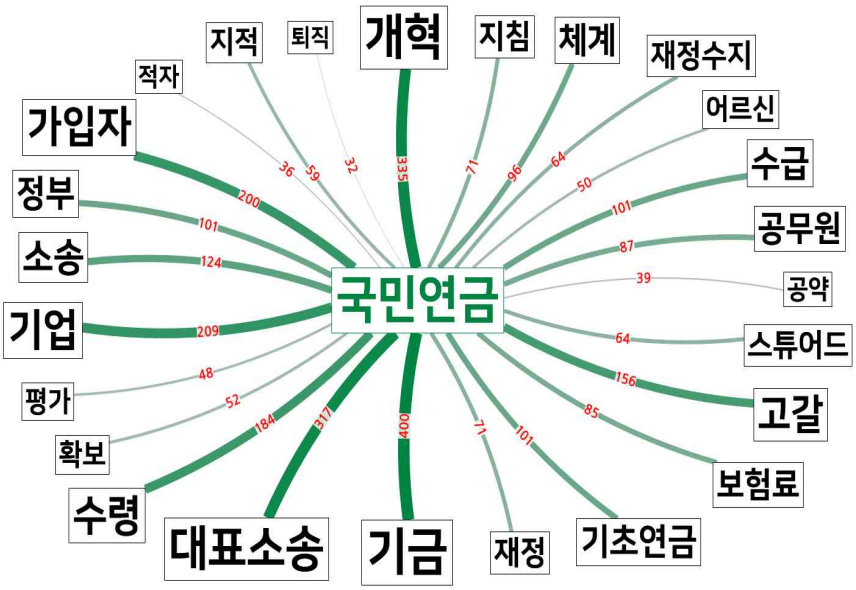


주요단어 : 인상(6,083), 대출(2,166), 신용대출(210), 급등(244), 만기(164) 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부실 가속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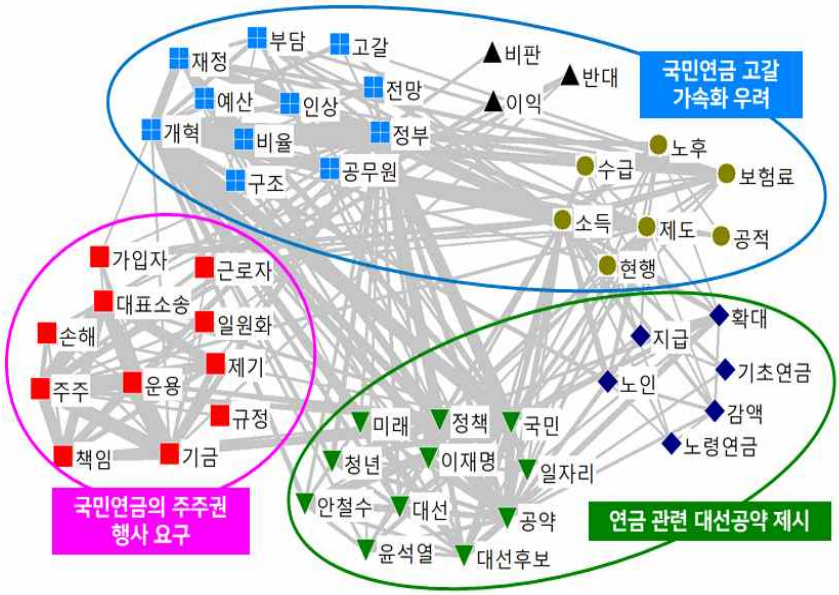


주요 주제 : 미국의 인플레이션발 긴축 움직임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화 우려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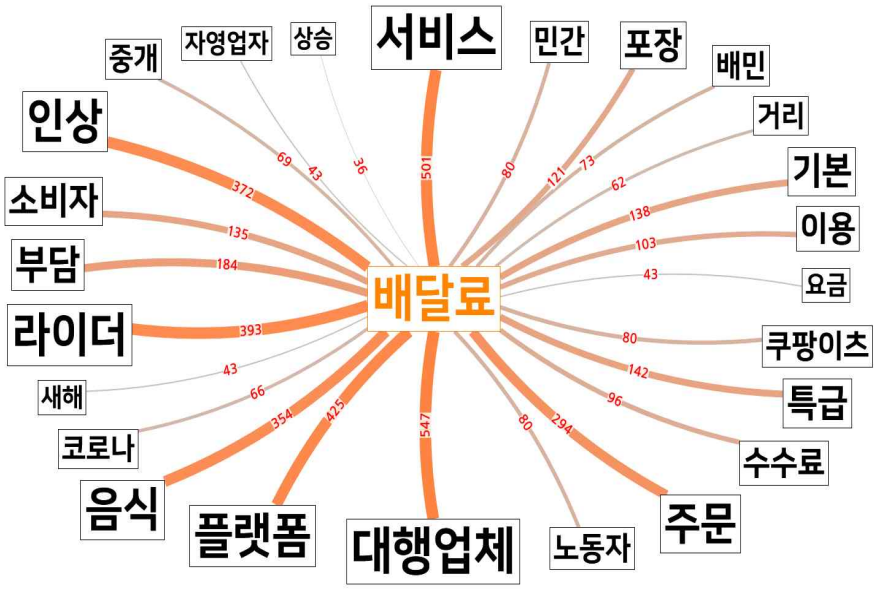


주요단어 : 개혁(336), 대표소송(317), 고갈(156), 기초연금(101), 체계(97) 등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연금 개혁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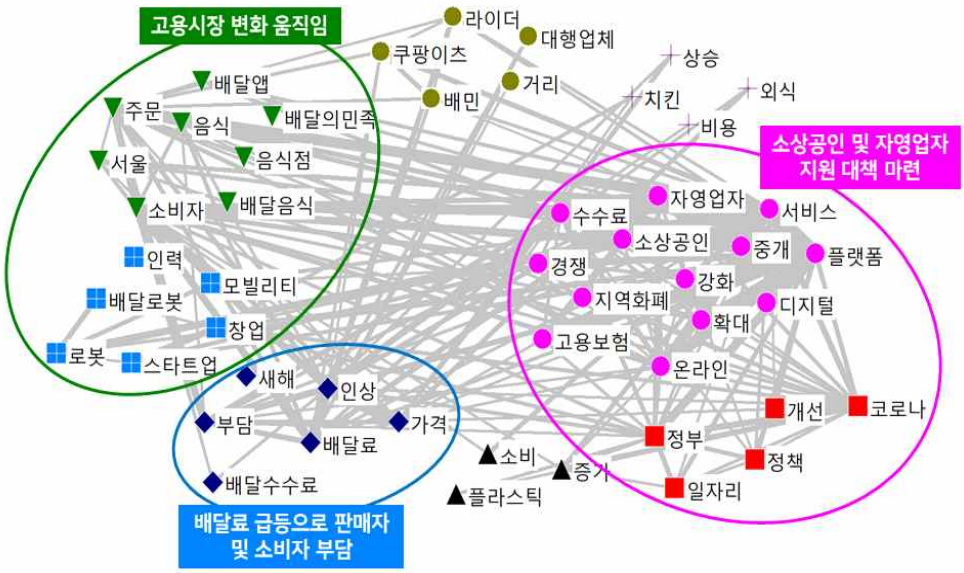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수급자 증가, 납입자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연금 개혁 관련 대선공약 제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요구 등에 관한 내용

배달료



주요단어 : 대행업체(547), 라이더(398), 인상(372), 부담(184), 특급(142) 등
새해 들어 급증한 배달료 상승으로 자영업자-소비자 부담 가중



주요 주제 : 한 집 배달 확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배달료 급등으로 판매자 및 소비자 부담 증가와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

※ 분석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24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금리 : 세계적 긴축정책, 올해 경제 회복의 리스크

<연관 검색어 : 금리, 한국은행, Fed, 자산시장, 물가>

▌현황

○ 1월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

- 2020년 5월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0.75%로 오른 것을 시작으로 약 넉 달 만에 0.75%p 상승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0년 3월 이전 수준으로 회귀

○ 세계적으로 경제회복세가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예고하는 등 긴축 기조로 변화 중

- 노르웨이는 지난 9월, 뒤를 이어 영국은 지난해 12월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완화 종료 시기를 6월에서 3월로 당겼으며, 금리 인상도 3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내 여러 차례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
- 중남미 국가들도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에 나섰으며, 아시아 국가들도 금리인상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천명하고 있지만, 지난 12월 유로존의 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5.0%를 기록하는 등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긴축 정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영향

○ 긴축정책에 대한 기대/우려로 인해 세계 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중

- 1월 26일 현재 S&P 500은 고점 대비 9.3%, 나스닥 100은 14.5%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 KOSPI 지수도 1월 27일 현재 2020년 최고점 대비 20.89% 하락[2)3)]
- 가상화폐 가격도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 : 2021년 11월 6만 7천 달러에 달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2월 1일 기준 3만 8천 달러까지 하락
- 금리 인상 또는 이에 대한 기대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부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대응

○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통화 긴축정책으로 신흥국에서의 긴축발작[4)] 발생 우려

- IMF 게오르기바 총재는 이미 저소득 신흥국의 60%가 부채 고통에 시달리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단기 달러 자금을 많이 빌린 나라에의 경우 부채 만기 연장,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의 해소 등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
- 하지만 2013년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인해 신흥국이 미리 금리를 인상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제2의 긴축발작의 발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

2) 국제금융센터, 2022.1.27. "1월 FOMC : 연준 통화긴축 전망 및 영향"

3) 한겨레, 2022.01.27. "연준 '긴축가속' 신호에 새파란 증시...2600도 위협하며 '발작'"

4)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증시가 급락하는 현상

2. 국민연금 :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연금 개혁 방안

<연관검색어 : 국민연금, 1990년대생, 연금개혁, 고령화>

▌현황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34년의 긴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자한테 일정한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이 방식에 따라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생애 평균소득의 40%(40년 가입 기간 기준)를 연금으로 받는 구조
  예) 월평균 100만 원 소득자가 월 9만원의 보험료(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를 40년 동안 낸 뒤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40만 원 수령

○ 1988년 도입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구조(보험료율 3%)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져, 1998년 1차, 2007년 2차, 2013년 3차 연금개혁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9%에 대한 소득대체율 40%의 현행 구조가 갖춰짐

○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덜 내고 더 많이,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

-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0%)은 주요 선진 국가들의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 한국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 국가는 현행 65~67→67~75세로 상향해 선진국 대비 여전이 낮은 수준

(단위 :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21

▲ 주요 선진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영향

○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낸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연금이 훨씬 많아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로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

- 임금과 물가 상승률,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2020년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원 소득계층은 3.21배, 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기준인 월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저부담·고급여 상황에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기금은 빠르게 소진될 전망

○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0년 2,234만 3천 명에서 2030년 2,087만 3천 명, 2050년에는 1,538만 9천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2020년 433만 6천 명에서 2030년 704만 5천 명, 2050년에는 1,432만 4천 명으로 늘어나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상황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며,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 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

○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 발생

○ 현재 구조에서 미래 세대가 현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자보다 3~4배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

-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출산율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2080년에는 필요보험료율이 3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대응

○ 첫째, 기금이 없어져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재정 운영방식을 현행 부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필요

-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현재 근로 세대로부터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
-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연금 선진국도 운영 초기에는 적립방식으로 운영하여 기금이 거의 소진되었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가능

○ 둘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독일·일본처럼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과 인구 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

3. 배달료 : 배달료 상승에 따른 배달시장 영향과 대응방안

<연관 검색어 : 배달료, 배달플랫폼, 배달시장, 가이드라인>

▌플랫폼 노동자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이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고용보험법 사례) 제기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가 되면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은 우버, 요기요, 배달의 민족, 카카오드라이버 등과 같이 앱이나 SNS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임
- 수년 전 타다 금지법(2019년 11월)이 플랫폼 노동계의 큰 이슈가 되었음
  ※ 모빌리티 서비스업체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2019년 11월), 타다의 11~15인승 승합차 제공 서비스 금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2020년 3월 6일)

○ 최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예술인만 포함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빠진 개정안 통과
-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5], 로드맵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
- 2021년 2~7월에는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에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다수의 언론기사 증가

○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여러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배달 관련 사업은 언택트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최근 10여 년 사이 23조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
- 배달이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지원체제는 부족하고 개별적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최근(2022년 초) 배달료 인상

○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배달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라이더의 일부 업체 독점과 부족으로 배달료 인상

- 배달대행업계 일각에선 대형 배달 플랫폼들의 무리한 속도경쟁이 배달비 인상을 초래하였다고 진단
-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파격적인 대우로 라이더들을 선점하다 보니 중소규모 업체들이 라이더 이탈을 막기 위해 배달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결국 배달비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
  ※ 배달앱과 배달 대행업체들의 배달기사 모집 격화, 기사의 몸값이 상승하고 쿠팡이츠, 배민 등의 배달원 한 명당 1건만 처리하는 단건 배달을 도입한 것도 배달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 배달 수수료 상승은 외식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배달비가 인상되면서 식당들이 음식 가격이나 최소 주문 가격도 올려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음
- 배달비 공시제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고,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최근 배달비가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
- 2022년 초 배달대행업체들이 기본요금을 500-1,100원 가량 인상했고, 날씨와 거리, 휴일에 따른 할증으로 요금은 보다 높아지고 있음
- 궂은 날씨나 밤늦은 외곽의 배달료는 특별히 1만 원 가량이 추가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 발생
- 향후 지역별, 배달 플랫폼 별 배달 수수료 정보와 거리 별, 배달 방식 별 수수료 현황을 수집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고용노동부(2020년 12월)는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

▮ 대책 :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소비자' 맞춤형 배달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배달 공동구매를 통한 배달비 배분, 배보다 배꼽이 큰 배달비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자영업자(소상공인)는 '배달료 공시제'보다는 '규제'가 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공시가 아닌 수수료 구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더 안 좋아지는 수수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배달을 끊고, 셀프배달로 대응하고 있음.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통한 관련 비용의 소비자에게 전액 부담은 배달업 관련 시장의 붕괴 가능성도 있음
- 합리적인 배달비 인상이 아닌, 출혈경쟁에 따른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 압박과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배달 수수료 공시제 및 규제, 배달비 산정기준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소비자들이 배달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배달앱에 들어가야 하는데 2022년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료의 합리적 산출** 필요, 배달료에 대한 여러 사례 제시 후 할 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관련 3자 대표(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소비자)가 모여 합리적 배달비 산정기준 모델 개발 연구 등 필요

○ 배달플랫폼 노조 출범, 적정 배달건수·수수료 등 제도화 필요성 대두

- 약 30만 명에 달하는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출범 등 권익보호 방안 마련
-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여전히 중요 쟁점
-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플랫폼과 연관하여 배달업무 종사자는 여전히 과도한 업무 및 노동환경에 직면해 있음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위 원 :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박민규

연 구 원 : 이승아, 박효찬, 송화영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